

2021
3. 22

KRIHS POLICY BRIEF
No. 808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와 정책적 시사점



요약

- 1 구조적 미스매치(mismatch, 부조화) 중 공간적 부조화에 의한 실업은 국가 및 지역 경기의 회복으로도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약으로 존재
- 2 2019년 기준 국내에서 수요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이 전체 구직자의 약 47.5%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 미스매치로 인한 제약이 약 8.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3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도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공간적 불균등 현상은 전체 불균등도 중 서울이 약 24.8%, 경기도가 약 24.1%, 부산이 약 8.7%로 높았으며,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 4 공간적 미스매치는 대도시의 중심 및 주변 지역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나타나며, 특·광역시인 경우는 구직자의 비중이, 광역도의 경우 구인기업의 비중이 커서 공간적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남
- 5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의 시·군이 병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은 15개, 단일 시·군 단위에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는 99개로 전국에 총 114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있는 것으로 판별됨
 - 전체 고용자를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획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값은 당초 22.1에서 11.5로 약 -10.6 감소
 - 공간적 미스매치의 감소효과는 지역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정책과제

- 1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제도화) 기능적 권역으로서 광역적 지역노동시장권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정책대상으로 반영하는 방안 및 지역노동시장권 모니터링 체계 도입
- 2 (정주환경 정비)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결합개발 방식 등을 고려한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방안 마련
- 3 (협약사업 및 거버넌스) 일자리 매칭을 위한 협약사업 및 중앙·지방의 종합적 거버넌스체계 개편

남기찬 연구위원
김경민 연구원
조성철 부연구위원
홍사훈 연구위원
안중욱 부연구위원



1

실업의 유형과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의 총량

실업의 유형과 공간적 미스매치

구조적 실업 중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Spatial Mismatch Unemployment)은 노동력을 공급하는 입지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요의 입지 간에 공간적인 미스매치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실업의 형태로, 공간 구조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구조적 실업에 비해 중·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짐

- 실업은 크게 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수요부족 실업(Demand Deficit Unemployment), 구인과 구직을 매칭하는 시간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으로 나눌 수 있음

표 1 이 브리프에서 제시한 실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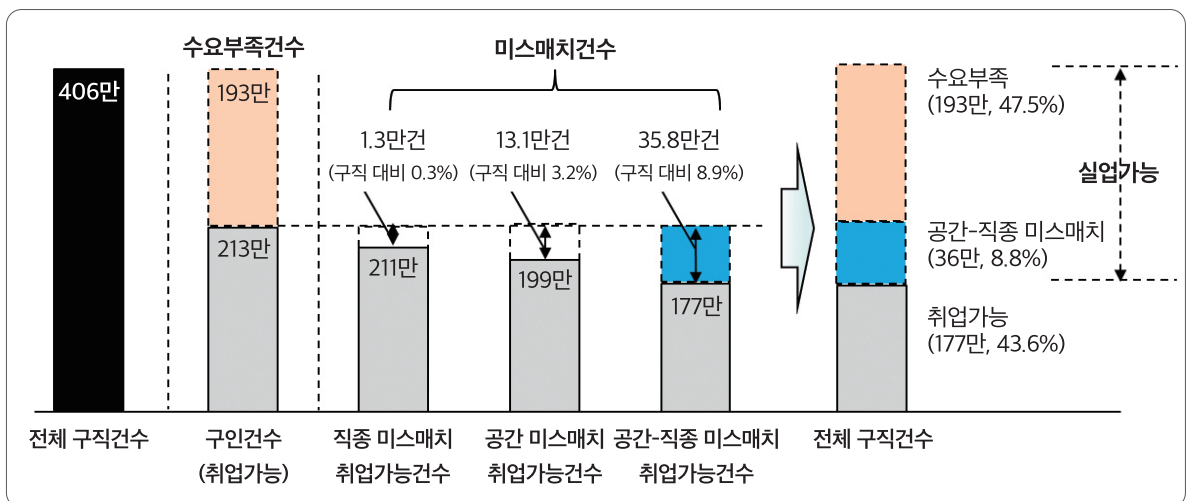
구분		조작적 정의
수요부족 실업		• 구직건수에 비해 구인건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
구조적 실업	직종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 전국적으로 구직건수보다 구인건수가 많으나, 구직자의 직종과 구인기업의 직종 특성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실업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 전국적으로는 구직건수보다 구인건수가 많으나, 특정 지역 내에서 구직건수에 비해 구인건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
	공간-직종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 전국적으로는 구직건수보다 구인건수가 많으나,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 구직건수에 비해 구인건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
마찰적 실업		• 구직자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

출처: 남기찬 외 2020, 41.

유형별 실업과 공간적 미스매치 총량

실업을 유형화하고 그 총량을 확인한 결과,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은 전체 구직건수 대비 47.5% 수준으로 나타나며, 공간적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 가능성은 전체 구직자 대비 약 8.8%에 이르는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1 실업유형의 분해 분석 결과



출처: 남기찬 외 2020, 요약vii.

2

구직-구인의 공간 불균등 분포

구직-구인의 공간적 불균등 분포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균등도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Armstrong and Taylor(1981)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군·구별로 산출한 값을 시·도로 합산한 뒤 전국비중을 산출

- 공간적 불균등 현상은 전체 불균등도 중 서울이 약 24.8%, 경기도가 약 24.1%, 부산이 약 8.7% 등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

표 2 시·도별 직종별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의 전국 대비 비중

구분	전체	경영·사무	연구·기술	교육·법률	보건·의료	예술·방송	숙박·음식	영업·판매	건설·채굴	설치·생산	농림·어업
서울특별시	24.8	33.4	30.9	15.5	22.5	37.6	23.9	33.5	30.1	9.1	7.5
부산광역시	8.7	8.4	8.5	5.2	6.3	4.9	5.5	11.8	9.0	9.7	4.1
대구광역시	3.8	2.8	1.9	3.1	7.0	2.0	3.7	3.8	2.9	4.1	2.7
인천광역시	4.7	4.8	4.8	3.2	2.1	3.8	4.4	6.6	3.5	6.3	2.7
광주광역시	0.9	1.4	2.7	2.4	4.0	2.9	1.3	0.9	2.5	1.6	0.6
대전광역시	2.9	1.7	3.1	2.8	2.9	1.5	2.3	1.7	3.3	2.2	1.1
울산광역시	2.0	2.1	1.9	1.5	4.1	1.2	2.4	1.5	1.9	3.3	2.9
세종특별자치시	0.2	0.5	0.1	0.6	0.6	0.3	1.4	0.3	0.2	0.0	0.2
경기도	24.1	24.2	21.1	23.4	14.4	18.0	15.0	23.0	17.0	32.8	20.7
강원도	3.0	2.4	1.4	2.4	3.2	3.9	9.2	1.5	3.8	1.2	8.0
충청북도	4.6	2.3	2.4	4.8	3.0	2.5	4.6	1.8	2.4	5.4	2.5
충청남도	3.1	1.8	4.9	3.7	2.5	1.4	2.6	0.8	5.1	3.2	9.5
전라북도	3.3	1.9	2.4	8.7	5.1	5.2	5.2	1.4	2.4	3.2	4.2
전라남도	4.4	3.4	6.3	6.8	4.2	4.9	6.2	2.3	5.1	3.9	12.4
경상북도	3.7	3.7	3.8	6.3	7.0	3.8	5.3	4.3	3.9	4.9	5.5
경상남도	5.2	5.1	2.7	8.3	8.4	3.7	6.0	4.4	6.6	8.9	13.0
제주도	0.6	0.4	1.2	1.2	2.5	2.4	1.0	0.4	0.3	0.1	2.4

주: 볼드체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도를 의미.

출처: 남기찬 외 2020, 76(원자료 고용행정통계 중 구인구직/취업현황으로 저자 재구성).

구직-구인 미스매치를 구별하면 특·광역시에서는 구직 미스매치, 광역도에서는 구인 미스매치가 주로 나타남

* Armstrong and Taylor(1981)의 방법을 변용하여 구직·구인 미스매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산출한 값을 시·도로 합산

- 특·광역시와 광역도 간 공간적 불균등 현상이 구직과 구인 미스매치로 분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권역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 미스매치의 본질적 속성 차이에 기인

표 3 시·도별 직종별 공간적 미스매치 지수값의 구직-구인 구분

구분	전체	경영·사무	연구·기술	교육·법률	보건·의료	예술·방송	숙박·음식	영업·판매	건설·채굴	설치·생산	농림·어업
서울특별시	0.621	-1.041	1.662	1.944	-0.800	4.875	-1.955	-1.394	-4.523	1.576	3.109
부산광역시	1.219	0.947	1.001	-0.887	-0.017	0.194	1.371	2.283	2.385	1.435	1.498
대구광역시	0.818	0.543	0.463	0.224	1.022	-0.477	0.947	0.945	0.910	1.094	1.227
인천광역시	0.872	0.820	1.201	0.555	0.267	0.957	1.120	0.739	0.906	1.223	0.058
광주광역시	0.182	0.166	-0.322	0.279	0.856	-0.782	-0.146	0.232	-0.631	0.408	0.276
대전광역시	0.634	0.417	0.383	0.478	0.616	-0.107	0.617	0.448	0.499	0.703	0.390
울산광역시	0.337	0.537	0.068	0.310	0.196	-0.202	0.245	0.384	0.224	0.606	1.336
세종특별자치시	-0.043	0.115	-0.015	0.129	0.142	-0.085	-0.366	0.090	0.054	-0.012	-0.086
경기도	-0.692	-0.533	1.268	3.067	1.530	2.890	3.014	-4.196	-1.684	-4.466	-4.265
강원도	-0.476	-0.279	-0.215	-0.407	-0.361	-1.004	-2.132	0.237	1.317	0.221	3.041
충청북도	-0.946	-0.520	-0.610	-0.990	-0.618	-0.667	-0.817	-0.417	0.085	-1.161	-0.370
충청남도	-0.626	-0.379	-1.256	-0.155	-0.215	-0.309	0.086	-0.109	-0.269	-0.948	-3.858
전라북도	-0.506	-0.323	-0.612	-1.778	-0.580	-1.419	-1.148	-0.026	0.746	0.285	0.127
전라남도	-0.977	-0.604	-1.565	-1.347	-0.899	-1.266	-1.266	-0.402	-0.577	-0.492	-4.636
경상북도	-0.254	-0.264	-0.834	-1.082	-0.669	-0.995	-0.246	0.289	1.151	0.292	1.320
경상남도	-0.025	0.494	-0.295	-0.088	0.091	-0.957	0.939	0.794	-0.687	-0.743	1.919
제주도	-0.138	-0.095	-0.323	-0.252	-0.558	-0.647	-0.263	0.104	0.095	-0.021	-1.086

주: 붉은색은 구직비중이 높아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지역을, 푸른색은 구인비중이 높아서 발생하는 미스매치 지역을 의미.

출처: 남기찬 외 2020, 76(원자료 고용행정통계 중 구인구직/취업현황으로 저자 재구성).

구직-구인의 공간적 불균등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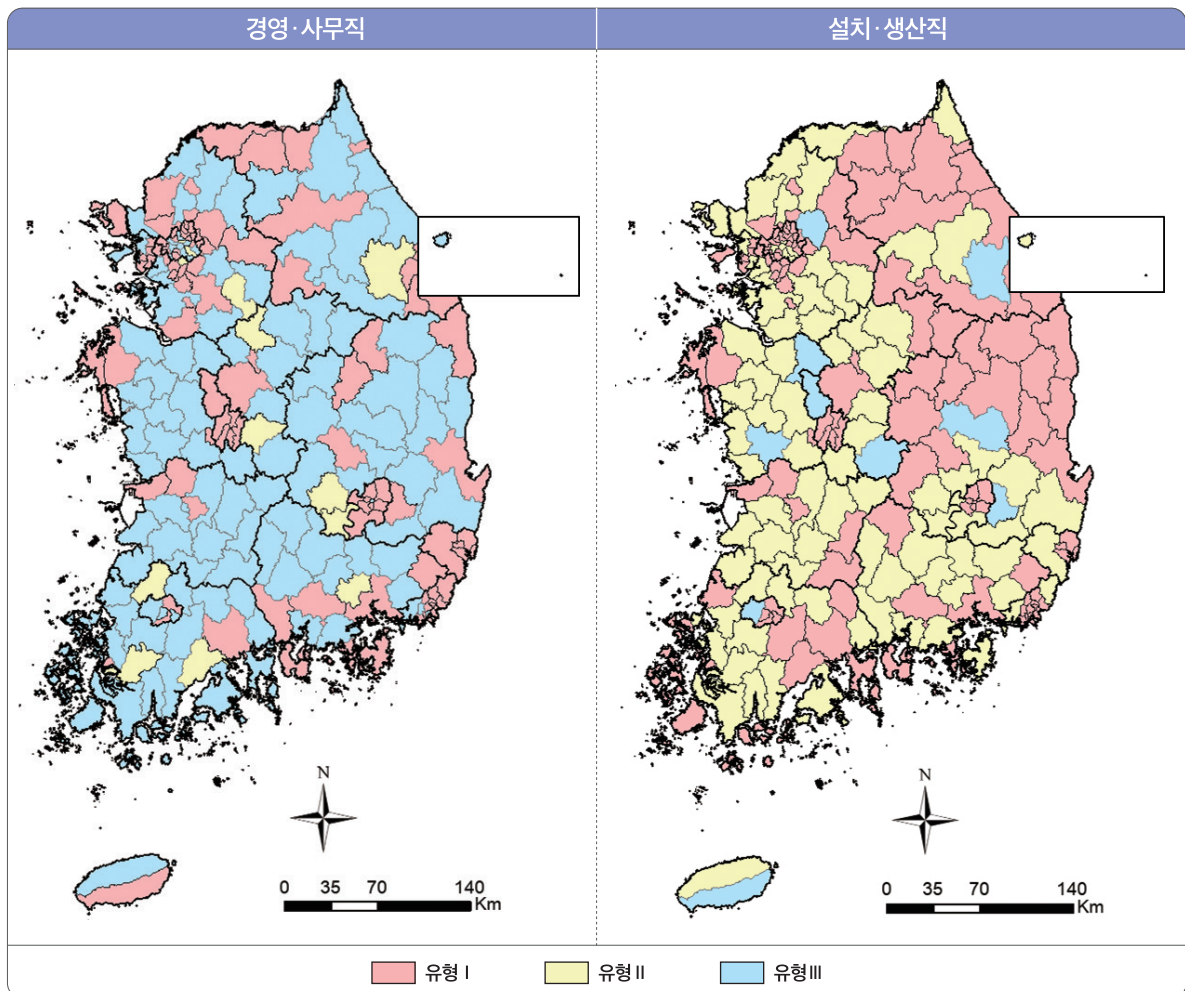
수요부족 실업이 발생하는 지역과 구조적 실업문제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에 따르는 복합적 정책방향 설정

- 절대적 일자리 부족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단순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일자리 매칭을 통한 구인-구직 균등화 정책을 활용하여 구조적인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
- (유형 I: 구직자와 구직비중 과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직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타지역 일자리와의 매칭을 통한 구직자 분산 전략
- (유형 II: 구직자가 구인건수에 비해 절대적·상대적으로 과소한 구인난 지역) 구직자의 이주 및 이동을 통한 유입 전략
- (유형 III: 구직난 지역이지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지역) 일자리 창출보다는 구직자의 분산 전략을 우선 활용

직종 및 지역에 따른 차별적 정책 마련 필요

- 경영·사무직의 경우 유형 III 지역이, 설치·생산직의 경우 유형 II 지역이 각각 차별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이 관찰됨

그림 2 수요부족, 구조적 실업 유형화 결과



출처: 남기찬 외 2020, 91.

3

지역노동시장권과 공간적 미스매치

기능적 권역으로서 지역노동시장권의 필요성과 의미

광역적 접근성에 기반한 통근가능 권역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노동시장권’(Local Labor Market Areas)의 존재는 공간적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는 ‘기능적 권역’(functional areas)으로써 의의를 가짐

-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매칭하는 시장이 ‘노동시장’이며, 이러한 노동시장이 매칭되는 공간적 범역을 ‘지역노동시장’이라 함
- 구직자가 다수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서 구인기업이 다수 밀집해 있는 기업지역으로 통근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지역별로 존재하는 불균등도가 권역단위에서 해소 가능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의 확정

지역노동시장권은 직종에 따라 그 범위 및 형성 결과에 차이가 발생

- 지역노동시장권 확정을 위한 방법은 Coombes et al.(1986)의 지역노동시장권 확정 방법을 변용하여 적용했으며, 이를 위해 2018년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을 확정함
-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한 결과 2개 이상의 시·군이 병합된 지역노동시장권은 15개, 단일 시·군 단위에서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의 개수는 99개로 전국 총 114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됨
- 비교적 많은 일자리가 관찰되는 경영·사무직은 총 66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설치·생산직의 경우 총 96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
- 분석에 포함한 직종 중 가장 적은 수의 지역노동시장권을 가지는 직종은 연구·기술직으로 총 45개 시장권을 가지며, 가장 많은 개수의 지역노동시장권을 가지는 직종은 농림·어업직으로 총 147개의 시장권을 가지는 것으로 판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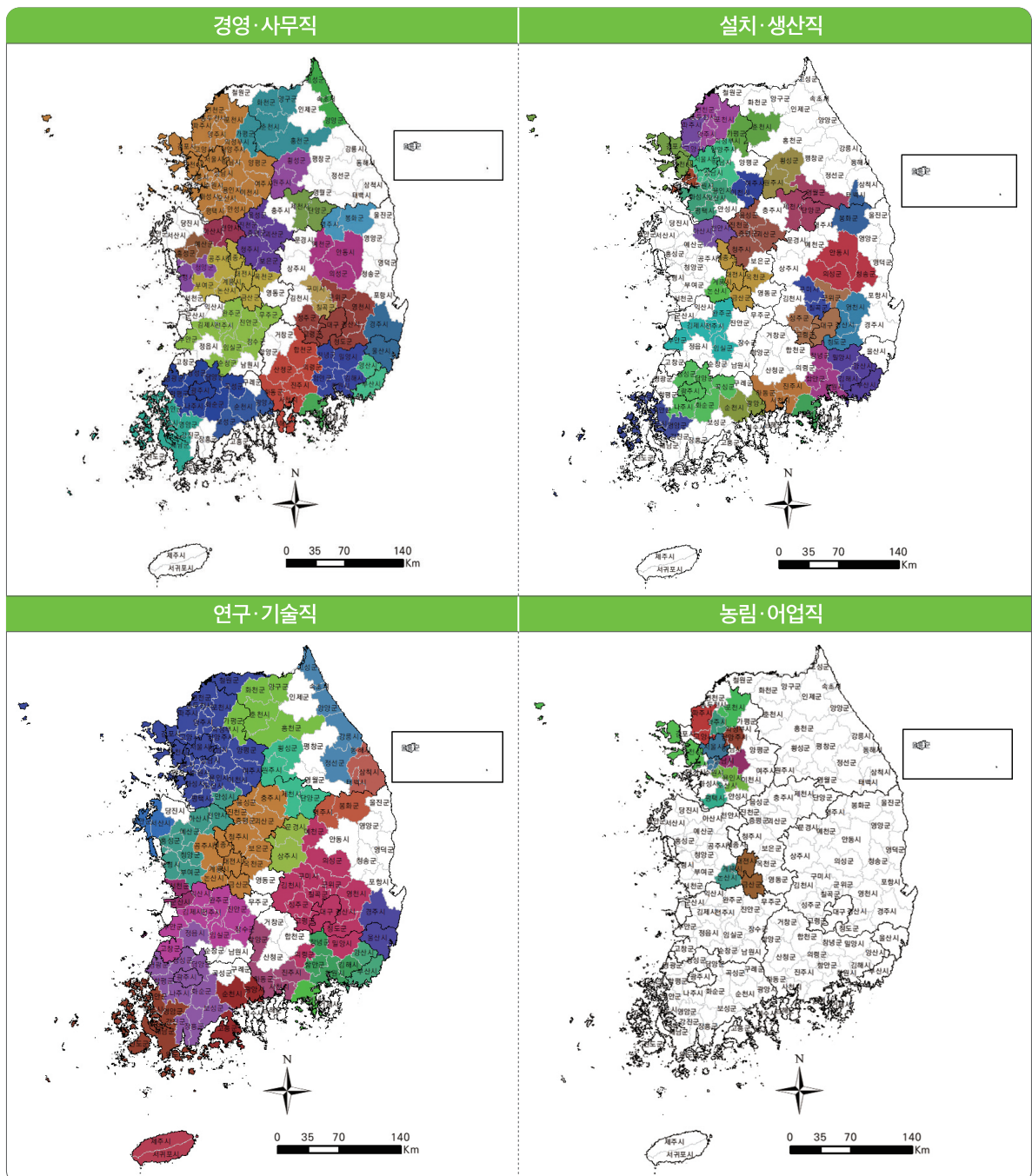
표 4 직종별 형성된 지역노동시장권 현황

구분	최종 지역노동시장권 개수			공급 자급률 (%)	수요 자급률 (%)
	합계	2개 이상 시·군 병합 지역노동시장권	단일 시·군 지역노동시장권		
전 직종	114	15	99	93.6	89.0
0. 경영·사무직	66	23	43	93.0	88.0
1. 연구·기술직	45	23	22	93.6	93.3
2. 교육·법률직	57	27	32	92.7	88.0
3. 보건·의료직	93	31	64	92.9	89.6
4. 예술·방송직	85	24	68	94.9	95.1
5. 숙박·음식직	136	15	121	93.4	91.5
6. 영업·판매직	115	16	99	93.8	91.9
7. 건설·채굴직	92	17	78	91.8	90.3
8. 설치·생산직	96	27	69	91.6	88.7
9. 농림·어업직	147	11	136	96.6	96.1

출처: 남기찬 외 2020, 110의 표 내용 재구성.

- **(경영·사무직)** 비교적 많은 일자리가 관찰되는 경영·사무직은 총 66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며,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획정되는 광역적 노동시장권역과 2~3개의 시·군 간 병합을 통한 중·소 규모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됨
- **(설치·생산직)** 2개 이상의 시·군이 형성하는 권역은 총 27개 권역으로 나타나며, 개별 시·군으로 노동시장권을 형성하는 지역은 총 69개, 총 권역은 96개, 서울권을 제외하고는 4~5개의 시·군으로 병합된 중 규모의 지역노동시장권이 나타남
- **(연구·기술직)** 총 45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도권 일대, 충청권 일대, 광주권 및 대구권 등 10개 이상의 시·군이 병합되는 광역적인 노동시장권이 나타남
- **(농림·어업직)** 총 147개의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어 가장 많은 수를 보이나, 단일 시·군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이 형성되는 등 각각의 지역노동시장권이 비교적 작은 공간적 범위를 가짐

그림 3 주요 직종별 지역노동시장권 획정 결과



출처: 남기찬 외 2020, 114; 116; 118.

지역노동시장권 확정에 따른 공간적 미스매치 변화

지역노동시장권이 확정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는 뚜렷이 변화

- 전체 고용자를 대상으로 지역노동시장권을 확정하는 경우 공간적 미스매치는 당초 22.1에서 11.5로 약 -10.6 감소
- 특히 공간적 미스매치의 감소효과는 지역적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지역노동시장권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미스매치 감소가 크지 않거나 악화되는 직종 및 권역도 관찰

- 직종별로 경영·사무직(-19.1), 설치·생산직(-15.8) 등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며, 기존에 45.3으로 가장 큰 공간적 미스매치를 보였던 농림·어업직의 경우 광역적 지역노동시장권을 확정하지 못해 감소 폭(-3.8)이 다소 낮게 관찰됐음
- 지역노동시장권을 확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미스매치 감소가 크지 않음

표 5 지역노동시장권 형성 전-후 공간적 미스매치값 및 변화량

구분	전체	경영·사무	연구·기술	교육·법률	보건·의료	예술·방송	숙박·음식	영업·판매	건설·채굴	설치·생산	농림·어업	
전	합계	22.077	25.180	25.899	20.549	22.189	27.157	26.578	26.246	35.458	31.314	45.333
후 (지역노동시장권)	합계	11.466	6.049	10.971	15.589	13.632	18.132	20.259	11.861	18.621	15.430	41.482
공간 미스매치 개선값	서울특별시	-3.915	-7.838	-3.763	-0.002	-4.440	-1.234	-4.483	-6.963	-5.325	-0.524	0.058
	부산광역시	-0.674	-1.060	-1.216	-0.326	-1.181	-1.098	-0.096	-0.605	-0.400	-2.219	-0.383
	대구광역시	-0.161	-0.268	-0.196	-0.604	-0.432	0.033	0.065	-0.034	-0.061	-0.449	0.000
	인천광역시	-0.258	-1.196	-1.232	0.429	0.296	-1.040	0.774	-1.383	-1.237	-1.399	-0.858
	광주광역시	-0.053	-0.063	0.166	0.155	-0.736	-0.602	-0.335	-0.175	-0.449	-0.377	-0.276
	대전광역시	-0.072	-0.094	-0.120	-0.069	0.874	0.753	0.000	-0.066	-1.162	-0.247	-0.503
	울산광역시	-0.100	-0.129	-0.460	0.000	-0.705	-0.112	-0.387	0.000	-0.473	-0.414	0.000
	세종특별자치시	-0.043	-0.115	-0.015	-0.129	-0.016	-0.085	0.000	-0.090	-0.054	-0.012	0.000
	경기도	-3.946	-6.083	-5.472	-2.465	-1.406	-4.866	-1.630	-3.747	-5.874	-6.174	-1.894
	강원도	0.000	-0.113	-0.091	-0.198	0.034	-0.018	-0.086	0.000	-0.087	-0.099	0.000
	충청북도	-0.071	-0.142	-0.557	-0.061	-0.048	0.124	-0.004	-0.016	-0.013	-0.515	0.000
	충청남도	-0.077	-0.156	-0.082	-0.136	-0.136	-0.123	0.000	-0.030	-0.087	-0.099	0.004
	전라북도	-0.213	-0.008	-0.022	-0.169	-0.160	0.010	-0.028	-0.195	-0.002	-0.574	0.000
	전라남도	-0.153	-0.530	-0.887	-0.548	-0.167	-0.218	-0.011	-0.057	-0.692	-0.615	0.000
	경상북도	-0.314	-0.552	-0.856	-0.417	-0.099	-0.101	-0.098	-0.633	-0.243	-0.389	0.000
	경상남도	-0.561	-0.785	-0.126	-0.421	-0.236	-0.447	0.000	-0.393	-0.677	-1.778	0.000
제주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합계	-10.611	-19.131	-14.928	-4.960	-8.557	-9.025	-6.319	-14.386	-16.837	-15.884	-3.852	

주: 푸른색은 절대값이 높은 상위 2개의 값을 의미, 붉은색은 지역노동시장권 형성 이후 공간 미스매치가 악화된 직종-지역을 의미.
출처: 남기찬 외 2020, 121의 표 재구성(원자료 고용행정통계 중 구인구직/취업현황으로 저자 재구성).

4

공간적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의 제도화) 기능적 권역으로서 공간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노동시장권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광역단위의 지역노동시장권 형성에 주목

- 지역노동시장권은 경제적 필요와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되는 특징을 지닌 만큼 정책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능적 권역으로 활용 가능
-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실행 전략으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망의 확충 및 정책권역으로서 '광역기능권'(가칭)의 획정과 모니터링 필요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 구인난이 존재하는 지역은 매력적이지 못한 정주환경으로 인해 구직자 유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소규모 일자리 공급지역에 대한 결합개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집합적 정주체계 정비

- 도심과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광역적으로 교통망 확충을 통해 해당 지역과 주거중심지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나, 광역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최저기준의 정주환경을 조성할 필요
- 정주환경이 열악한 지자체 차원에서 소규모 산단, 개별입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규모 산업단지의 수익을 소규모 산단 집적지에 재투자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활용
-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규모 지역과 소규모 일자리 제공 지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규모를 갖춘 지원시설 용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활용

(협약사업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행정단위를 넘는 공간 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범부처 패키지 사업 구성·추진을 위한 협약방안 및 중앙·지방 거버넌스체계 개편

- 공간적 미스매치 개선을 위한 매칭사업이 주로 생활밀착형 인프라사업 위주라는 측면에서 현재 지역발전투자협약에서 다루는 생활SOC사업의 추진방식 적용 가능
- 중앙 거버넌스는 기존의 매칭·복지·교육 중심의 부문적 역할뿐 아니라, 각 부문을 일자리가 매칭되는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접근성 개선 및 정주여건 정비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사업 시행
- 공간적 미스매치의 문제는 광역 협력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만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광역적인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
- 기초지자체 측면에서는 지역 내에서 광역접근성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 정주 인프라의 집중적 공급이 필요한 지역 등 필요 단위사업을 발굴하고, 수요에 맞게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반

참고문헌

고용행정통계. 구인구직/취업현황. https://eis.work.go.kr/sys01012.do?tranId=sys01012_00&menuId=041010010&autoRptSrch=Y (2020년 4월 27일 검색).

Armstrong, H. and Taylor, J. 1981. The Measurement of Different Types of Unemployment. *The Economics of Unemployment in Britain*: 99-127. London: Butterworths.

Coombes, M., Green, A.E. and Openshaw, S. 1986. An efficient algorithm to generate official statistical reporting areas: the case of the 1984 Travel-to-Work Areas revision in Britain.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37: 943-953.

※ 이 브리프는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남기찬·김경민·조성철·홍사흠·안종욱. 2020.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정리한 것임.

• **남기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
(kcnam@krihs.re.kr, 044-960-0244)

• **조성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sccho@krihs.re.kr, 044-960-0153)

• **안종욱**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jwahn@krihs.re.kr, 044-960-0279)

• **김경민**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
(kkmkim@krihs.re.kr, 044-960-0168)

•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
(saheum@krihs.re.kr, 044-960-0356)

